

보고도 돌아서지 못한다면

제 1독서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을 뵈게 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낼 사명을 받은 불은, 태워 없애고 사그라지는 진노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오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티의 지진으로 인해 일어난 참상을 보도로 접한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곤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며 매일의 삶을 허락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잊은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벌을 받았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예기치 못한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하느님의 징벌과 분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예기치 못한 사고와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느님의 ‘징벌’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학살당한 갈릴래아 사람들과 실로암 탑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비유 들어 말씀하신 것은 경고를 보고도 회개하지는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심판은 나와 무관한 일이구나’ 하며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뿌려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제 2독서에서 보듯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잘려 버려지게 됩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 내게 허락된 새 아침은 나의 의로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허락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삶에서 고개를 돌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알면서도 내가 걷는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글/ 이상협(그레고리오) 신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구 이주사목 전담 최병조 신부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주사목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주사목을 한다고 하면, 한국 신자 분들은 이주만 사목을 합니까? 라든지, 또는 얼굴은 곰상한데 왜 험한 일을 하시지요?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주사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저는 일상에서 체험합니다. 그러하기에 가끔 교구들의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제가 더욱 이주사목을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주사목은 어떤 사목을 하는 것일까요?

이주사목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돌봐주는 사목입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주민들 중에는 이주노동자들, 결혼이민자들, 그리고 영어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주사목은 바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다른 국적의 신부님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매 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수원 고등동성당, 안산 원곡성당, 평택성당, 광주성당, 발안성당에서 매 주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들을 위한 성사사목을 하고 있으며, 또한 7개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 기능을 함께 하는 사목센터와 수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개의 쉼터, 2개의 어린이 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이주민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하느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두가 나그

네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듯이 돌보아주었는가?(마태오25,35)”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주민들을 보면서 사제로서 삶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제직의 의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임을 이주사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지면을 통하여 제가 이주민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With)”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주사목부에 부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먹을 것을 사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 때에 광주에 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광주에 사목센터를 열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그들 헌금 1/3의 자금으로 광주 엠마우스를, 그리고 발안 엠마우스 센터도 그들 공동체의 헌금 1/4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고 형성하는 사목을 전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주는 것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이방인으로서의 삶 동안에도 저를 가장 도와준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주민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소 공동체의 날’과 ‘성서 나눔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사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캐오를 방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주사목뿐 아니라 모든 사목의 모델은 바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미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로는 행정적인 일로 인하여 자주 찾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노력할 것이고, 저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도록 도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주사목을 통하여, 아니 저의 사제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길

갈망합니다. 주님!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소서. 아멘

- 최병조 신부님

사순 기도 거석 손흥일

주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수난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정숙한 마음으로
광야 로렘나무 아래서 고난의 날을 보낸

엘리아처럼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처럼
거처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 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 가도록
슬픔에 잠기던 길 예루살렘의 그 거리
죽음의 거리 비아도로로사 (VIA DOLOROSA)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음미 하면서
하느님 앞에 큰 빛 진자가
빛 갠자의 심정으로
마음 속에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성장, 영적성장의
뜻 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부활절 판공성사 안내

시간은 공히 **오후 4시 부터 미사 전** 까지와

미사 후 1 시간에 걸쳐 **2회** 가집니다.

21일(사순 제 5주일)- 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28일(주님수난성지주일)-고원일 안드레아신부님

◎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학년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개강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소피아 자매(519 954 2544)

주일학교에서 필요한 필기구등을 모집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월 구역모임 안내

▶키치너 20일(토) 7시 교육관

▶캠브리지 20일(토) 7시 미정

▶브랜포드 27일(토) 7시 장명길 형제덕

▶워털루 1구역 27일(토) 6시 한택중 형제덕

워털루 2구역 20일(토) 6시 이은희 자매덕

워털루 3구역 13일(토) 7시 신상우 형제덕

워털루 4구역 27일(토) 6시 김호철 형제덕

◎ 사순 특강 안내

▶ 3월9일 ~ 10일(화,수) 성 김안드레아 성당

저녁미사 : 7:30pm

특강 : 8:00pm ~10:00pm

주제 : 예수성심

▶ 3월11일~3월12일(목,금): 예수성심 천주교회

저녁미사 : 7:00pm(미사후 특강)

▶ 강 사 : 손 우배 신부님

▶ 문의 : 이상희 세라피아(519-894-3533)자매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 일 시 ; 3월 19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이동기 형제덕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는 신청해주세요

◎ 청소년부 흡피안내

청소년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소 : <http://kwpaul.com/youth>

◎ 십자가의 길 안내

그동안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향으로 바쳐오던 십자가의 길이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참회와 보속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지낼 것을 다짐하는 기도지향으로 바뀝니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시작되며 시간엄수 바랍니다

(선도자 명단

3월 7일-워털루 2구역장 이동기 테오도로

3월 14일-워털루3 구역장 김손권 도미니꼬

3월 21일-워털루4구역장 최우석 F. 사베리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안내/헌금 담당

▶3월 : 워털루 2 구역

▶4월 : 워털루 3 구역

미사 1 시간 전에 성당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 1조로 구성하시어 미사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8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15.00
교 무 금 : \$ 100.00 115(100)
감 사 금 : \$
특 별 : \$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 0 (\$5800.00)
합 계 : \$ 81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10호

2010. 3. 7.

사순 제 2주일

해설 신 계연

차주 해설 고 영호

성 가

입 당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봉 헌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 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퇴 장 (58)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세상은 갈수록 쉽게 살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쉽게 살려 한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돌아봐야겠습니다.

		독 서	
3월 7일	김동규	김은옥	
3월 14일	유종훈	정광숙	

		봉 헌	
3월 7일	이명희	이상희	
3월 14일	김동규	김은옥	

		복 사	
3월 7일	구한힘	이수민	
3월 14일	안아림	김근영	